

金星電線(株), 法院에 LAN 시스템 공급기로

金星電線(株) (代表 : 朴元根)는 최근 금성소프트웨어와 공동으로 大法院의 법원행정처와 인천, 대전, 대구, 창원 등 4개 지역을 잇는 지방법원에 LAN시스템(근거리 통신망)을 공급기로 했다.

총 설치 규모 18억원의 이번 시스템은 금성소프트웨어가 응용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금성전선이 담당한다.

금성전선은 사법부의 전산화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에 서울과 부산, 수원 지방법원에 LAN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이번에 2차로 대법원과 4개의 지방법원을 잇는 시스템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법원의 본격적인 전국 전산망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구축하는 사법부의 LAN시스템은 이동성과 확장성 등의 성능이 우수한 광케이블과 UTP케이블을 사용하여 대법원과 지방법원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시스템도 기존의 DOS(도스) 방식이 아닌 사용자 중심인 WINDOWS(윈도우) 환경의 운영 체계를 갖춰 초보자도 쉽게 이 시스템을 사용 할수 있게 했다.

오는 10월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인데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사법부의 송무관리는 물론 집에서든 국내외의 판례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법부 관계자는 말했다.

사법부는 대법원 이하 각 고등법원, 지방법원, 그리고 각 지원까지 네트워크 설치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를 점차 전산화하는 것을 연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同社는 금번 LAN시스템 공급을 계기로 보다 차원높은 Know-How를 확보함으로써 LAN사업의 방향을 전략화하여 향후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寶星重電機(株), 25.8KV가스遮斷器 開發

寶星重電機(株) <代表: 朴都洙>는 국내처음으로 25.8KV급 옥외용 가스遮斷器(GCB)를 개발했다.

보성중전기는 90년부터 연구개발비 5억원을 투입 開發, 한전의 개발 채택시험을 합격해 오는 10월부터 納品하기로 했다.

이번 개발된 GCB는 既存 진공차단기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며, 특히 공기보다 絶緣性能이 대기압상태에서 3.7배 우수하며, 무독성가스를 사용, 사고시 전류흐름을 차단, 사고 피해범위를 최소화시킬수 있다. 이 제품은 87년 제정된 국제규격인 IEC에 규정된 밀봉압력 구조를 채택 연간가스누설량이 0.049% 이내, 수명은 30년 이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없게 됐다.

三星電機(株), LDP用 스핀들모터 國産化 成功

三星電機(株) <代表: 尹鍾龍>는 지난 91년부터 LDP용 모터개발에 착수, 총개발비 5억원을 투입하여 최근에 브러시리스타입의 스핀들모터 국산화에 성공했다.

삼성전기가 이번 개발한 LDP(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용 스핀들모터의 경우 기존의 모터의 短點을 보완하여 브러시가 없는 타입으로 장시간 사용시에도 모터의 마모, 연소가 거의 없어 일본업체들에 의해 잠식되고 있던 국내 모터 시장에 큰 활력소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11월부터 본격시 생산에 착수. 내년부터는 10~15만대 생산라인을 갖추어 국내 오디오 업계에 공급할 계획이다.

大元電機(株), ISO 9002 認證 獲得

大元電機(株) <代表: 李浩植>는 최근 ISO(국제표준화기구) 품질인증 기관인 호주표준협회(SA-QAS)로부터 수원공장, 서울사무소 및 호주지사의 제조, 설치 부문에 대한 품질시스템을 보증하는 ISO 9002 인증을 획득했다.

대원전선은 올해 품질, 기술 원가혁신을 위한 대대적인 경영혁신운동(T&T 2000)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ISO 9002 품질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취득한 것이다.

同社は 지난 30년간 국가기간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을 생산 판매 왔으며 최근에는 난방배관용 XL-PIPE를 생산, 판매해온데 이어 열수축관, 자동차 배선용관, 조사기기선등 특수제품 개발에도 성공하여 사업부분의 확대를 가능케하고 있어 더욱 전망이 밝으며, 현재 매출액의 15%인 수출비중을 95년말 4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KOEMA 消息 ◆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세미나 성황리 마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부조달확장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韓電 조달시장 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련업계 및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韓國電機工業振興會가 9月 15日 오후 2시 한국종합전시장 3층 소회의실에서 120여명의 重電業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重電산업의 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연사로 나선 상공자원부 이재훈 다자협상과장은 우리나라의 정부조달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나 기존 가입국 조달 통계에 의하면 전체조달중 국외조달의 비중은 (EC, 일본의 경우 0.5%미만) 극히 미미하다고 전제하고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는 생각보다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나 重電機부분 등 일부 정부구매 비중이 큰 업종은 정부조달시장 개방으로 인한 파급영향이 여타 업종보다 클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업계의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전력분야는 정부조달협상에서의 핵심분야로 각국의 관심이 매우 높아 금번 GATT/정부조달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미국, EC등 주요국으로부터 양자적인 개방 압력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아 이 분야의 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산업연구원 金在駿 박사는 우리정부가 '92. 6월에 韓電을 제외한 양허안을 제출했으나 미국 및 캐나다에서 한전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최근 미 EC간 중앙정부, 전력의 물품, 서비스, 건설시장 개방 합의에 따라 한전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韓電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개방의 충격도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다.